



DPGShow

디지털 프린팅의 트렌드 제시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하는 국제디지털프린팅 및 그래픽디자인전 (DPGSHOW 2007)이 지난 5월 17일 개막됐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인도양홀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는 더욱 활발한 비즈니스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실질 수요 관람객, 구매력 높은 관람객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이 선보였다. 이로 인해 그 어느 해보다 더 실속 있는 전시회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5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DPGSHOW 2007은 총 64개 업체가 참가, 총 면적 8,010㎡에 이르는 전시 공간에 모두 341개의 부스가 마련되었다. DPGSHOW 2007이 채택한 슬로건은 'Surprising! Digital Printing' 이다.

이는 놀랍고도 드넓은 디지털프린팅 시장을 DPGSHOW에서 제시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 이에 걸맞게 실사연출, 디지털날염, 특수인쇄, 이미지연출 및 그래픽 디자인, 후가공 및 응용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프린팅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의 최신 제품들이 대거 전시됐다.

이번 DPGSHOW는 실질 수요층 관람객과 구매력 높은 관람객을 많이 유치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러한 의지는 특히 후원 부분에서 잘 드러났다. 2회 대회 이후 한국스크린인쇄공업협회가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고, 올해에는 조달청과 한국실사출력협회가 새롭게 후원에 참가했다.

한국스크린인쇄공업협회는 스크린인쇄 공정이 점점 디지털프린팅화하는 추세에 맞춰 회원사를 비롯한 관련업체들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이끌었으며, 지난해 11월 출범한 한국실사출력협회도 협력협회로 합류하여 기술 포럼 공동개최, 회원사 대상 참관 홍보 등 전시회 전반에 걸쳐 공동마케팅을 펼쳤다.



2
1 DTP체험관
2~4 태일시스템, 마카스시스템, DGI부스
5 DTP체험관
6 HP, 파랑테크 부스





3



5



4

수출상담회, 디지털아트 작품전 등 부대행사

이번 전시회에는 지난 2006년에 개소된 '바이어 마케팅센터 (Buyer Marketing Center : BMC)'가 서울산업통상진흥원과 협력해서 중국 천진시 소재 프린팅 관련 바이어 50여개사를 초빙, 참가업체와 구매상담을 연결하는 등 활발한 수출입상담이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디지털아트작품전, DTP 특별관 등이 마련되어 풍성한 볼거리가 이어졌다. 붓 대신 컴퓨터로 미술작품을 만들어가는 디지털아트는 일반 작품에서 느끼지 못하는 독특한 그래픽디자인을 전달하는 것이 특징인 회화의 한 분야. 이번 행사에는 한국디지털아트협회의 주관 아래 30여 개 작품 데이터가 고화질 프린터로 출력되어 출품됐다.

한편 DTP 특별관에서는 DTP 사업에 관심있는 관람객들이 여러 제품들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었는데, 관련 학과와 기업들이 참가함으로써 DTP 산업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김치원 기자 kcw@print.or.kr



6